

보도시점 2026. 9. 30.(수) 08:00 배포 2026. 9. 30.(수) 08:00

‘케이-엑스포’, 멕시코 사로잡다... 4만 8천 명 방문, 1,561건 수출 상담

- 9. 24.~27. 멕시코시티에서 역대 최대 규모 ‘케이-컬처’ 분야 박람회 개최, ‘케이-컬처’의 중남미 진출 위한 거점 역할
- 중남미 10개국 구매기업 313개사 참가, 1억 2천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, 업무협약 88건 성과

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‘2026 멕시코 케이-박람회(2026 K-EXPO MEXICO)’가 총 4만 8천 명 방문, 수출 상담 1,561건 진행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.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휘영, 이하 문체부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),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,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, 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,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소영)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콘텐츠, 한식(푸드), 미용(뷰티) 등 ‘케이-컬처’ 분야의 12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‘케이-컬처’ 분야 종합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.

총 4만 8천 명 방문, 멕시코의 ‘케이-컬처’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

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‘케이-엑스포’는 ‘케이-콘텐츠’를 활용한 문화 행사와 산업 전시·상담을 연계한 초대형 복합 박람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. 특히, 이번 박람회는 세계 5위*의 두터운 멕시코 케이팝 팬덤을 활용한 부대행사를 열어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‘케이-컬처’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했다. 소비자 전시 행사 개막 전에 행사장 앞 복도에서 진행한 ‘케이팝 랜덤댄스 플레이’ 행사에는 케이팝을 사랑하는 멕시코 청년 150명이 참여했다.

* 멕시코 케이팝 팬덤 1,400만 명 이상 보유, 세계 5위 기록(스포티파이 2025년 공식 발표)

또한,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소비자 전시에는 아모레퍼시픽, 엘지생활건강 등 미용(뷰티) 대표기업, 농심, 씨제이제일제당, 빙그레 등 식품 대표기업 외에도 삼성전자, 기아자동차, 엘지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기업이 참여해 ‘케이-컬처’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. 특히 둘째 날인 26일(토) 개관 시간에는 2천여 명이 입장 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마지막 날(9. 27.)에는 인파가 몰려 입장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, 멕시코 내 ‘케이-컬처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번 소비자 전시에는 4만 2천 명이 방문하고 박람회와 연계한 케이팝 콘서트(웹시센터, 9. 25.)에는 6천 명이 참가해, 이번 ‘케이-엑스포’를 찾은 방문객은 총 4만 8천 명을 기록했다.

1억 2천만 달러 수출 상담 및 88건의 업무협약 체결, ‘케이-컬처’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

9월 24일과 25일에 진행한 수출 상담회에서는 콘텐츠, 미용(뷰티), 음식(푸드), 일상생활(라이프스타일) 등 ‘케이-컬처’ 분야 국내기업 120개사와 중남미 10개국 주요 방송사 및 음반사 등 핵심 구매기업 31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,561건의 현장 상담이 이루어지고 업무협약(MOU) 88건이 체결됐다. 현재까지 집계된 수출 상담액 규모는 1억 2천21만 달러이고, 계약액은 약 90만 달러 규모로 파악됐다. 이번 수출 상담회에 참여한 화장품·의료 기기 기업은 현지 구매자와 7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고, 공연 지식재산(IP) 분야의 한 벤처기업은 멕시코 현지 구매자 등과 80만 달러 규모의 수출·투자 계약을 성사시켰다.

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멕시코 현지의 20대 여성 아드리아나 씨는 “‘케이-엑스포’에서 한국의 음식, 음악, 화장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볼 수 있어서 흥미진진했다.”라고 밝혔다. 또한, 이번 박람회를 통해 브라질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플랫폼과 ‘케이-푸드’ 콘텐츠 공동제작 관련 1백만 불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엘티비 백현석 대표는 “남미 시장의 ‘케이-푸드’와 ‘케이-컬처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.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남미 시장 진출을 계속 도모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최휘영 장관은 “이번 박람회는 중남미의 일상에서 ‘케이-컬처’의 매력을 더욱 가까이 알리고 우리 ‘케이-컬처’ 기업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”가 되었다며, “특히 이번 ‘케이-박람회’의 성과 창출에는 관계 부처 및 주요 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고, 내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해 수렴해 행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성과를 이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‘2026 멕시코 케이-박람회’ 주요 현장 사진

담당 부서 <총괄>	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	책임자	과장	김현목 (044-203-3331)
		담당자	사무관	이가진 (044-203-3332)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진희 (044-203-287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미 (044-203-2867)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	책임자	과장	김정락 (044-201-2171)
		담당자	사무관	최미루 (044-201-2174)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무역진흥과	책임자	과장	김열규 (044-203-4030)
		담당자	사무관	조혜진 (044-203-4031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	책임자	과장	김유라 (044-202-2940)
		담당자	서기관	김소연 (044-202-2945)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	책임자	과장	허남기 (051-773-5480)
		담당자	사무관	최수연 (051-773-5483)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장	신재경 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수 (044-204-7516)





소비자 전시장 전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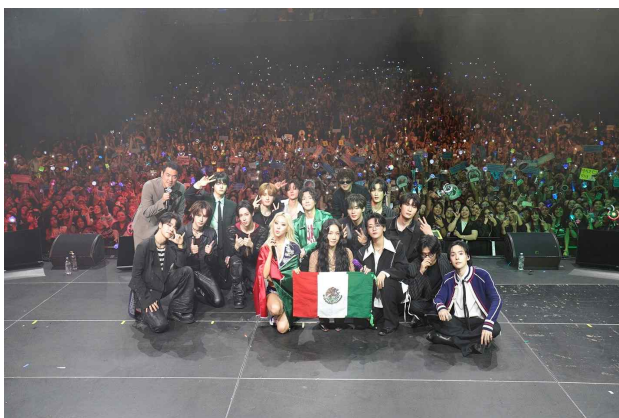
소비자 전시 중 체험 프로그램 참여 관람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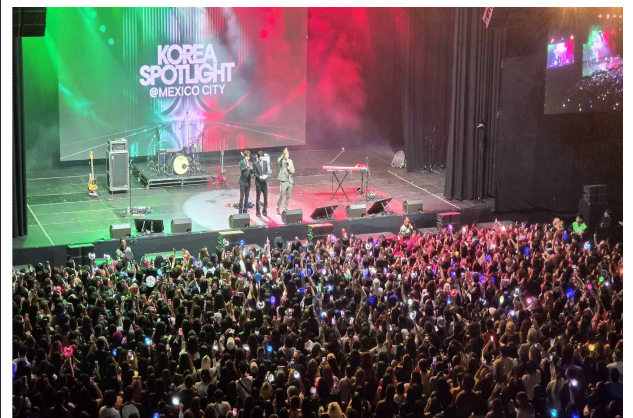
수출 상담회 현장



소비자 전시 부대 프로그램, 푸드쇼 현장



케이팝 콘서트 현장



케이팝 콘서트 현장